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상 본격화

광주도시공사, 이번주부터 호반측과 실무협의 사업 타당성·세부 일정·공공성 확보 등 중점

광주시의 해묵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본격화된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부지는 여태껏 빈터로 남아 있으며,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완공돼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담보상태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호반 측과 이번 주부터 협의 조건 등을 조율하는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선정 통보일이 지난 9월 19일이어서 협약 체결 기한은 오는 11월 19일까지다. 또한 60일 이내에 협약 체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주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 늦어도 11월 말까지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호반 측이 제출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안에는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숙박시설, 수변공간(워터파크),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공사는 호반 측이 사업 기간인 앞으로 5년 동안 진행할 사업 실행능력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성사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한다.

또 광주시는 사업제안서의 사업 계획과 내용 등을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을 집중해 검증한다. 사업 분야별로 사업 기간 5년 이내에 추진할 세부 계획과 일정 등이 합리적으로 구성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과거 골프장 조성 이후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전례를 고려해 광주도시공사는 협상 과정에서 공공편익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강조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는 협상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세부 추진 일정, 공

공성 확보 방안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호반 측은 주차장 조성, 하천 정비 이외에도 관광단지 내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일자리와 관련된 공공 기여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호반 측의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하고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역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 적절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이 마련돼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광주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는 과거 군 사격장이었던 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273만6000㎡)에 유원지와 체육 시설,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내년 국제농업박람회 北 사절단 초청 평양 발효콩팥 2공장 건립 등 남북교류사업 재개

전남도가 평양 발효콩팥 2공장 건립, 내년 10월 국제농업박람회 북한 사절단 초청 등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던 정영태(새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 사무총장이 북측과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고 새 사업을 발굴·활성화하는 합의를 교환했다.

합의서는 협의회 상임대표이자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와 북측 남북교류 공식 접촉 창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리성일 협력부장이 각각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서 북측은 가까운 시일에 협력사업 활성화 논의를 위해 전남도와 시장·군수, 의회 의장,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사절단을 초청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남북교류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평양에 준공한 발효콩팥 1공장

에 이어, 건립이 추진되다 2010년 천안 합 격점사건 이후 중단된 2공장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또 농업기술, 산림, 해양수산, 희귀광물자원, 에너지,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남도가 내년 10월 개최하는 '국제농업박람회'에 북한 사절단을 초청하고 선진농업기술 교류, 국제식품포럼 참석, 북한 농식품 홍보·판매 부스 운영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우수 품종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등도 진행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리적 특성을 살린 전남도 차원의 종합적 통일정책인 땅굴협력사업, 목포-신의주 간 국도 1호선을 연계한 스포츠 교류, 수산양식 분야 기술교류 등 23가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시군에서 발굴·추진하는 사업들을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굴비 고장' 영광에 참조기 양식 연구시설 준공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은 영광군 백수읍 서해 특산시험장에 참조기 연구·실험동과 어업인 교육장을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설은 지상 2층, 834㎡ 규모로 실험실, 어병실, 어업인 교육장, 세미나실 등을 갖췄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 실현을 위해 지난해 해양수산기술원에서 24억원을 확보, 착공 10개월만에 완공했다.

앞서 2011년에는 분관동(사무실) 500㎡와 참조기 시험동(전어수조·종묘수조 등) 700㎡를 건립했다. 2015년에는 3799㎡ 규모로 참조기 종 보존동, 양성시험동, 다목적 시험연구동을 건립해 참조기 양식 관련 시설을 구축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출범식 지난 5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항쟁 출범식이 열렸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10일부터 여론조사

26일 250명 시민참여단 추출

광주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의 방향을 결정짓는 공론(公論)이 오는 10일부터 본격화된다. 16년간 소모적인 찬반 논란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대중(공공)교통의 불편함이 가중, 승용차가 급증한 가운데 이번 공론이 어떻게 결론날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7일 "10일부터 26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찬반 여론조사를 벌이고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

일 회의에서 향후 일정을 확정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수행할 업체로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사)한국사회과학연구소센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각 이 컨소시엄과 3억7400만원에 계약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6일 시민참여단 명단이 정해지면 이들에게 11월 8일까지 찬반 양측의 자료집을 보내고 숙의할 시간을 준 뒤 11월 9일과 10일 1박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투표로 찬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구 감소 추세에서 2호선을 신설하면 만성 적자인 도시철도 1호선과

함께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 전문가 등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을 보완하며 광주 전역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이 기반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공공교통의 편의성을 높여 적자 규모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BRT(급행간선버스), 노면전차 등은 광주 교통 여건에 부적합한데다 국비 지원도 안 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다.

이번 도시철도 2호선의 찬반 여부를 광주의 교통 시스템 전반의 혁신으로 이끌어

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시철도 2호선을 포기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의 신속한 도입,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 및 준공예정 폐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도시철도 1호선, 준공영제를 도입한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광주 전역을 1시간 내에 다닐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진해 시의 보조금 규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승용차 급증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교통 지체,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 도심 진입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영태 위원장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서비스

숙박·교통 등 최대 50% 할인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숙박, 교통, 관광시설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는 '남도패스'가 발매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7일 "이달 중순부터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인 '남도패스' 카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도패스'는 광주·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 교통, 관광시설 통합할인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결제형 선불카드다.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료, 렌트카 서비스 등 최대 50%까지 현장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KTX 주요역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면 KTX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관광지, 숙박시설 등 80여 곳의 카드

가맹점에서도 평균 30% 수준에 해당하는 폭넓은 할인을 제공한다. 순천 스마즈 등 40%의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양 사도는 지역 내 내실있는 할인가맹점을 점차 확대해 내년에는 2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코나아이(주)와 협력해 전국 코나카드 할인가맹점인 스타벅스, GS25 등 260만 매장에서 즉시할인 또는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도패스는 앱카드와 실물카드로 발행된다. 앱에서 '남도패스'를 내려받아 계좌등록 후 별도 비용없이 충전·환불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는 광주·전남지역 KTX역 내 여행센터에서 1·3·5만원 등 3가지로 구입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LA서 2000만 달러 농수산물 수출 협약

전남도가 미국 한인 상공단체와 2000만 달러 규모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LA 한인상공회의소, 식품 수입업체인 키트레이딩(KHEE Trading)과 각각 1000만 달러 규모 농수산물 수출 협약(MOU)을 체결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앞으로 3년간 전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회원사를 통해 수입하고 키트레이딩도 2년에 걸쳐 수입한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130여명 이상

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키트레이딩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3000만 달러를 수입하고, 한국식품도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하는 한인 유력 수입업체다. 그동안 연간 200만 달러 정도 전남 식품을 수입해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수입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농어민들이 농수산물 판매보다는 생산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수출 기회를 쥐여준다"며 "미국 교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SFS
Comfort Shoes
www.koreasas.co.kr 공식수입사: 고보실업(주)

함께 할 대리점 사업자를 초대합니다

Comfort, Style and Quality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시에 소재한 편안한구두 SAS Shoemakers와 긴밀한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는 1994년부터 24년간 한국공식수입업체로 지정되어 국내 유명백화점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간 국내 편안한 구두의 대명사로 알려진 사스구두는 많은 고객분들께 크게 환영을 받으며 국민들 발건강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사스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 편안한 신발을 토대로 다양한 스타일과 연령층에 맞는 New Design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본사의 판매확장계획으로 국내지역별 판매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성실과 신용으로 함께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100% 정품, 남·여 수제화

지역대리점 모집 문의 : 02-544-7294

판매대리점 모집절차 안내

전화상담 문의

본사면접 및 서류제출
※각주

대표이사 면접 및 계약

대리점 개설

※본대리점사업 희망자의 사업계획서(자유양식) 발표